

## 수업행동분석 평가표 (수업시연자용)

일시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교수자	이름	안주영	소속(전공)	연극영화교육전공	
주제	행동동사 활용 - 구분과 선택				
<b>주요 진단 항목 (그렇다 :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X)</b>					
수업 구성	도입	• 수업 시작 시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진행을 안내하는가?			○
		•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가?			○
	전개	•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가?			X
		• 이해와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가?			△
		•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
마무리	• 수업 종결 시 요약 및 정리를 통해 마무리를 하는가?			△	
학습자 중심	•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체계성	• 수업이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
목표도달	• 학생들이 충분히 수업 목표에 도달하겠는가?				△
수업 분위기	• 수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는가?	○	언어	• 말하는 속도, 크기, 발음이 적절한가?	○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		• 적절한 어휘 및 언어를 사용하는가?	○
매체 활용	• 수업자료 및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	비언어	• 제스처 등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이었는가?	○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편한 목소리 톤으로 강의를 진행함.</li> <li>- 순환지도를 하며 학생들이 활동에 어려움없이 잘 참여하는지를 확인함.</li> <li>- 교과서에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모호하게 다루는 개념을 주제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함.</li> <li>- 활동지를 만들고, 활동 형태를 2인 1조로 잡아서, 사고할 수 있도록 함.</li> <li>- 익숙한 대본을 선택하여 학생들이 바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ul>				
개선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예시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바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느껴졌을 것 같다.</li> <li>- 행동동사라는 개념이 문법적 개념이 아니기에, 맞다/틀리다가 아닌 '효과적인가'로 판단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런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는 정답 제시보다 자신이 구분한 행동동사가 효과적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다.</li> <li>- 모두가 아는 대본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전제를 세우고 수업하는 것은 학습자가 질문할 때 주춤하게 만드는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다 해도 한 번 더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li> <li>- 다음 차시에서 표현까지 확장해서 수업할 예정이라도 수업 내에서 간단한 표현 활동을 포함한다면 개념 이해와 적용을 연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li> </ul>				
수업시연 통해 배운 점	<p>시연을 준비하면서 자신 있는 주제보다는 평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인 동시에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수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p> <p>수업의 전체적인 구성은 갖추었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를 이끌어내고자 했으나, 오히려 수업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시연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탄탄한 수업 구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p>				
	<p>또한, 연기는 실기 과목의 특성상 교수자마다 설명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나만의 명확한 개념정리 및 스타일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더라도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설명의 차이를 단순한 스타일의 차이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p> <p>시연을 준비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예고생들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고 재학 경험이나 예고 출강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을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는 고민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시연 이후에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p> <p>희곡 「갈매기」를 모두 알고 있다 해도, 인물 간의 관계성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p>				

	<p>적으로 제시하고, 대본 분석 과정에서 대사의 단위를 나누는 방법 역시 생략하지 않고 안내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과정은 이미 알던 학생들은 개념을 재정리하는 기회가 되고,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해를 돕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p> <p>그래서 이 시연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활동 중심 수업을 유지하되, 활동 이전에 개념 설명과 다양한 예시를 통해 학습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준을 가정하기보다 모른다는 전제에서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학습의 출발점을 동일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교수님과 동료들의 피드백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이해도 점검에 더 힘쓰고, 행동동사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예시를 제시하는 등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활동이 왜 중요한지 짚고 넘어가는 과정을 포함하여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p>
<p><b>교수님 피드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력이 좋았다.</li> <li>- 개념과 관련하여 착각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서 설명해준 점이 좋았다.</li> <li>- 활동형태를 2인1조로 잡은 것이 좋았다.</li> <li>- 활동 후 학생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던 점이 좋았다.</li> <li>-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활동인 것 같다.</li> <li>- 행동동사와 행동동사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활동인지, 활용이 가능한 행동동사와 아닌 행동동사를 구분하는 활동인지 모호했다.</li> <li>- 마무리퀴즈를 초반에 했더라면 학생들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다.</li> <li>- 행동동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에 이걸 찾고 활용하는 것이 나의 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업 후반이 아닌 초반에 다뤄진다면 좋았을 것 같다.</li> <li>- 행동동사의 특징을 활동 전에 미리 설명했다면 이후 활동이 쉬웠을 것 같다.</li> </ul>
<p><b>동료 피드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소리 톤, 제스처, 에너지가 좋아 수업 집중도가 높았다.</li> <li>- 활동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점이 좋았다.</li> <li>- 짝과 함께 활동하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던 점이 좋았다.</li> <li>- 순환지도를 통해 학생 반응을 살피고 피드백해준 점이 좋았다.</li> <li>- 교과 내용을 본인만의 방식으로 확장하여 수업을 설계한 점이 좋았다.</li> <li>- 이전 수업 내용을 연결하여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한 점이 좋았다.</li> <li>- 활동 시작 전 개념 설명이 부족하여 이해가 어려웠다.</li> <li>- 같은 대사에 서로 다른 행동동사를 적용했을 때의 차이나 그에 따른 상대의 반응 변화까지 제시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li> <li>-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보완되면 좋겠다.</li> <li>- 대사를 제시할 때 줄거리나 관계성 등의 설명이 추가된다면,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다.</li> <li>- 대사의 목표와 행동동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다.</li> <li>- 행동동사를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행동동사, 상태동사, 변화동사 등의 개념과 기준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li> <li>- 수업을 확장하여 실제로 연습하고 있는 장면을 활용하거나 장면 연기 발표까지 이어지는 활동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li> </ul>

## 수업행동분석 평가표(동료평가자용)

일시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평가자				
교수자	이름	안주영		소속(전공)				
주제	행동동사 활용 - 구분과 선택							
<b>주요 진단 항목 (그렇다 : ○, 보통이다 : △, 그렇지 않다 ×)</b>								
수업 구성	도입	• 수업 시작 시 목표를 제시하고, 수업 진행을 안내하는가?						
		•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가?						
	전개	• 수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제시하는가?						
		• 이해와 사고를 촉진하는 수업 전략을 사용하는가?						
마무리		•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가?						
학습자 중심	•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업이 이루어졌는가?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체계성	• 수업이 체계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가?							
목표도달	• 학생들이 충분히 수업 목표에 도달하겠는가?							
수업 분위기	• 수업에 대한 열의가 느껴지는가?			언어	• 말하는 속도, 크기, 발음이 적절한가?			
	•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는가?				• 적절한 어휘 및 언어를 사용하는가?			
매체 활용	• 수업자료 및 매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는가?			비언어	• 제스처 등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이었는가?			
<b>장점</b>	<p><b>미용교육 민서아</b> - 수업을 하며 몸동작을 통해 시선을 집중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 순환지도를 통해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이 의문을 가지는 것을 최대한 학생 수준에 맞게 설명해주려 한 것 같습니다.</p> <p><b>미용교육 이지윤</b> - 동사를 사용하여 상황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p> <p><b>미용교육 임상란</b> - 순환지도가 적절하였다. 내용이 어려웠지만 쉽게 설명해주셨음.</p> <p><b>미용교육 한주은</b> - 목소리톤, 제스처, 눈마주침이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됨. - 직접 연기를 함으로써 수업 참여를 유도함. - 학습 목표를 활동을 통해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주도적 수업을 진행. - 조별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짐. - 교사의 에너지가 수업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었다. -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수업 참여도를 높임.</p> <p><b>연영교육 권가은</b> - 활동지가 있어서 스스로 생각해보기 좋았다. - 친구와 얘기하며 쓸 수 있어서 생각을 공유하기 좋았다.</p> <p><b>연영교육 도혜진</b> - 차분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하셔서 듣기 편안하였다. - 수업구성안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잘 짜여져 있었고 2인1조로 활동을 할 때 순환하면서 학생들 반응을 도와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 것 같다.</p> <p><b>연영교육 박다아나</b> - 목소리톤과 제스처가 강의에 안정감을 주고 전체적인 이쁨이 좋다. - 교과과정 안에 있는 것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확장하고 수업안을 통해 설계한 점이 좋다. - 교안으로 페이퍼 활용하도록 해준점이 좋다.</p>							

**연영교육 유창연**

- 활동지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의 적용이 좋았음.
-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짚고 넘어가서 수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음.
- 듣기 편한 화술이어서 수업에 집중하기 좋았음.

**연영교육 이지한**

- 학생들이 잘 따라오는지 체크하는 점이 좋았다
- 디션과 속도가 적절함
- 다양한 예시를 보여줌
-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서 따라가기 편안했다.

**연영교육 윤정희**

- 밝고 큰 목소리가 수업을 집중할 수 있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다.
-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함.-> 수준에 적절한 수업 주제
-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는 것 같다.
- 대사를 나누고 쪼개는 방법을 알 것 같다.

**연영교육 홍소리**

- 목소리 톤이 좋아서 집중하기 좋았다.
- 예시로 연기를 짧게 보여주는 부분이 좋았다.
- 에너지가 좋아서 아이들 텐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다른 선생님들 의견과 달리 동사 나누기 활동이 배워보기에 더 좋았다.

**미용교육 민서아**

- 행동동사에 대해 수업을 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알려주면 좋을 것 같으며 시각적 이미지가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교육 이지윤**

- 활동의 정답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미용교육 임상란**

- 행동동사에 대한 예시를 제시해주면 정의를 좋겠다.
- 정의를 먼저 알려주고 구분하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 순환지도시 좀 더 세밀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미용교육 한주은**

- 출석, 인사가 빠짐.
-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때 예시나 비유를 더 활용했다면 좋을 것 같다.(어려운 개념 이라서)
-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함.

**연영교육 권가은**

- 너무 안 가르쳐주고 활동을 시작함. 어느정도 설명이 필요할 듯.

**연영교육 도혜진**

- 행동동사 예시가 있었으면 더 잘 이해가 되었을 것 같다.

**연영교육 박다아나**

- 행동동사에 대한 예시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같은 대사에 다른 행동동사를 선택한 후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동사에 의해 상대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반응의 다양성까지 가면 더 좋겠다.)

**연영교육 유창연**

- 활동이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크다. (해석의 여지가 크다)
- 활동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음.
- 대사 제시할 때 줄거리 혹은 등장인물 관계가 설명이 더 되었으면 좋겠음.

**연영교육 이지한**

- 예시가 아쉬움. 문장의 목표와 행동동사와의 차이점을 말해주면 좋을 것 같음. 조금 더 직접적인 예시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음.

**연영교육 윤정희**

-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확장하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다.

**연영교육 홍소리**

- 예고 입시반이나 선생님마다 행동동사를 설명하는 기준이 다르고 예고 입시생들은 독백을 주로 연습하다 보니,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동사라고 생각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강의에서 '상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에 이해가 더 잘 되었다.

개선할 점

기타 의견	<p><b>연영교육 권가은</b> -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을 듯. 갈매기는 전사 없이 어려운 희곡이니 조금 더 쉬운 짧은 스크립트로 가면 좋을 듯.</p> <p><b>연영교육 도혜진</b> - 행동동사 표현하기에서 더 확장하여 장면을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p> <p><b>연영교육 박다아나</b> - 나중에 수업에서 장면 분석이나 장면 만들기를 할 때 본인들이 연습하는 장면으로 하면 좋겠다. - 행동동사, 상태동사, 변화동사의 의미기준을 나누고 각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 좋겠다.</p> <p><b>연영교육 유창연</b> - 행동동사를 한정시키기보다는 예시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음. - 인물분석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가 더 제시되면 좋겠음.</p> <p><b>연영교육 홍소리</b> - 예고생을 대상으로 하면 장면 연기 발표를 해도 좋은 수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행동동사를 몸으로 직접 체화해보고 경험해보는 수업으로 확장되어 더 좋은 수업이 될 것 같다.</p>
-------	---